

Daniel K. Darko 박사, 루가 복음, 17회, 기도

에 대한 예수 , 루가복음 11:1-13

© 2024 Dan Dark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기도에 대한 예수, 루가 복음 11:1-13입니다.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와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애하는 동료인 테드 힐드브란트가 하는 일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그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 만든 이 좋은 작업에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전 강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고 루가 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1
1장에서 루가가 마태의 산상 설교에서 발견한 내용 중 일부를 가져올
것이고,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토론을 맨 처음에 발견할
것입니다. 마태 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경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가 우리에게 공유한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듯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여러분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자정에 그에게 가서, 친구여, 빵 세 개를 빌려 달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여행을 떠났는데, 내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에서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경솔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자는 얻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구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끈기.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머지 구절을 논의하기 전에 좀 더
 광범위한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에게 와서 그의 영적 훈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들도 어떻게 그 패턴을 따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의 또 다른 차원을 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또 다른 것은 친족과 우정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족적인 일로 규정하실 것입니다.

판사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상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법정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족의 개념을 재개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적 문제이며, 원한다면, 그들이 아버지께 다가갈 때 기도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지상의 주인보다 그들에게 더 나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강조점은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누가 마태와 달리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성령에 대한 그의 신학 강조의 핵심 부분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루크는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1장 13절을 읽었을 때 기억하실 수 있듯이, 루크는 이 구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악한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제 기도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실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저 나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개하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국과 아버지가 이미 제공하거나 보통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분위기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 관계 차원, 즉 용서와 가정을 이끄는 가족의 머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다섯 가지 항목을 풀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그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아버지에 대한 공동의 메모를 가져오신 다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저 아버지라고만 말합니다. 누가는 그것이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을 걸어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마치 이분이 제 아빠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사에서 바치는 어떤 종류의 제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 던지는 어떤 종류의 물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녀처럼 좋은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한 명 이상의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올 때, 루크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팀에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것도 친족 관계 아이디어의 일부 요소를 가져옵니다.

고대 세계를 경연 대회에 투입했습니다. 저는 종종 미국에 있는 제 학생들에게 아버지 개념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업에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씩 겪으면서 제 학생 중 너무 많은 학생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에 아버지가 있지만, 그들은 아버지에게 폭군적 아버지라는 개념을 강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페미니스트 의제를 평가하려고 너무 열성적일 수 있는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권한 부여와 여성의 권한 부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일을 해내는 매우, 매우 강한 싱글맘에게 자랐고, 저는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는 그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성별이 아니라, 제 학생 중 일부는 사실 남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라는 개념을 자신이 가진 아버지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슬픈 점은 제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아버지라는 개념과 내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남성입니다.

누가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신과 내가 싫어하거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알다시피, 그 아버지와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아버지라는 개념은 제2성전 유대인 부모에게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수장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명예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보존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국가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삶은 모두 가족의 복지에 헌신합니다. 가족의 수장으로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든 그의 탓입니다. 집안의 누군가가 잘 안 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가정의 수장인 인물이 되지만 폭군 가정이나 폭군 지도자는 아니고, 가족을 돌보고 아내와 협력하거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아내와 협력하는 가정의 수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시고 귀에 울려 퍼지는 아버지는 한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집안의 여성 중 한 명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집안의 젊은 남성 중 한 명은 모델이 되고 싶어한다. 가장 잘하는 인물이 되는 사람.

하지만 누가는 그것을 그보다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는 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에 끼어들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매우, 매우 어려운 아버지 개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는 땅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사랑스럽고 보살피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꺼안을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싱글맘에게 자랐습니다. 저를 사랑하지만 곁에 계시지 않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와서 모든 좋은 것들로 나를 신부로 삼고는 가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곁에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거기에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신은 항상 곁에 있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당신은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루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제 딸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아빠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질문, 모든 질문.

가끔은, 저는 그들과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들은 제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알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의 좋은 점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분께 다가가,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따로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즉,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당신의 마음 뒤편에 있는 중심 문제 중 하나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는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삶을 통해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이 영어 단어는 많이 쓰입니다. 실례합니다.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영광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이름이 나 안에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친족 의무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저는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주목하세요.

기도할 때, 그는 말한다, 당신의 왕국이 오게 기도하라. 당신의 통치가 온다. 와서 통치하라.

와서 책임을 지세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복종한 사람들의 삶, 마음, 생각, 그리고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기도할 때, 그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하고 있다면 아무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려는 일과 하실 일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심장부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중동의 어떤 지역에서는,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거의 모든 식사에 맛있고 납작하고 마비된 빵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우리는 앉아서 그것을 비틀고, 무언가에 담그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다. 좋다. 이것을 줘: 그들은 의도적이다.

네,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문법에서 관찰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필요한 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도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신뢰에 뿌리를 둔 기도입니다. 그리고 루가는 이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루가와 마태 모두에서 용서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같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이전 토론을 기억한다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관계적 차원의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가족이 함께 있고,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잘못 대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종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끔 , 그들이 주변에 없을 때, 당신은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은 때때로 목에 통증을 줍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을 정말 슬프게 만듭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문지릅니다. 가끔 그들은 당신이 간지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을 간지럽힙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우리가 여기 가진 전부이며, 우리는 항상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환경에 있을 때마다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상상해 보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을 잘못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의 그룹 역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관대한 정신에 뿌리를 둔 것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소년으로서, 제가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에 있는 버전이며 디다케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여러 번 암송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끔 고백을 하러 가면 신부가 같은 종류의 기도문을 주시고, 저는 그냥 들어가서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기도문의 요점을 잊어버립니다.

이 기도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면서, 저는 이것의 관계적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명예를 가진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그에게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그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안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영적 훈련, 즉 기도를 삶의 핵심 부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가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방문한 친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가 오면, 그 친구는 한밤중에 올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명예와 수치심이 여기서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전화를 걸고 다른 친구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친구가 친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친구는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시나리오를 마치 여러분이 미국이나 아프리카 국가에 있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문을 열거나 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가족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고대 지중해 가정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문이 하나 있는 비교적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동물이 침입하여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두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또한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실제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불편함이 수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친구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왕국 사업을 논의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는 이 경우에 친구라는 단어를 네 번 언급합니다.

네, 관습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가 일어나서 구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물론,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빵을 만들어서 남은 빵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친구가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듣는 사람이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비유에서 그것은 불편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가족의 혼란과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다른 문제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그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밤 늦게 오는 친구가 끈기 있게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가 끈기 있게 버티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읽은 말씀에 대한 그 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의 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고, 찾는 사람은 발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진술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논의와 연결해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세요.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려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께 부르짖으세요. 답을 얻지 못한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찾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팀을 불러내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1절과 2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그 특정 주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것을 말했으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는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 1 2절을 살펴보세요. 달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리라.

아마도 당신은 전갈에 대해 잘 모르고, 달걀과 전갈의 비유가 무엇인지 묻겠죠. 전갈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전갈을 깨거나 밟으면 내장이 터져나옵니다. 달걀이 섞인 것 같고, 노랑게 섞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주 제 신발에 전갈이 들어갔습니다. 발을 넣고 밟을 줄은 몰랐고, 그게 기분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갈에게 맞지 않아서 항상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 전갈은 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친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감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청중에게 상기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서 그들은 항상 자녀에게 최선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특히 서양 문명에서 고대의 아버지들은 항상 폭군이었고, 자식들을 별로 돌보지 않았으며, 아버지라는 인물은 항상 문제였다는 관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합니다. 저는 고대 세계의 가족 역학과 신약의

가정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거든요.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하는 맥락에서 항상 그들의 흐름이 있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지우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위해 최선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아버지가 무정한 아버지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생각은 누군가가 우리의 사회적 의식에 주입한 잘못된 명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인 주변 사람들조차도 자녀에게 최선을 바라는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감성을 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최선을 바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구해야 하고, 계속 찾아야 하고, 계속 찾아야 하고,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서 그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며, 자녀에게 전갈이나 뱀이나 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상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을 매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나 10%도 제 아이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누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청중, 즉 제자들에게, 아버지만이 자녀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강의 시리즈를 마치며, 우리에게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는 천상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고, 사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 또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천상의 아버지의 눈에 중요한 존재이며, 천상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가 될 기회를 주었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쁨이나 좋은 것들,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이러한 이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입지가 굳건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강해졌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항상 가까이 계시고, 좋은 대의를 위해 인도하고, 인도하고, 지시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담한 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강의 시리즈를 따라가면서 지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담론에 가져오는 관계적 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돌보며,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신이, 그 아버지가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는 데 필요한 힘과 결의를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대로. 신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속 배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7, 기도에 대한 예수, 루가복음 11:1-13입니다.